

#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박차'

### 전북도,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 국가 공모 선정 5년간 440억원 투입·동일지역 내 완벽한 3단계 원스톱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 가시화

전북도가 대한민국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다.

도는 실도로에서 이뤄지는 상용차 자율주행 최종 실증단계, 즉 3단계(PILLAR 3) 사업인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참여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능검증·성능검증을 마친 자율주행차가 최종적으로 실도로에서 기술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상용차(화물차)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도와 군산시가 공병여왔던 사업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중 1단계(PILLAR 1, 기능

검증) '새만금 주행시험장(18년 준공)'이 구축돼 있고, 2단계(PILLAR 2, 성능검증) 실증기반인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20~22)도 준공(22. 8월 예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단계(PILLAR 3)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지역 내에 상용차 자율차의 기술(기능)구현부터 성능검증, 기술실증 까지 동일 지역 안에서 원스톱 실증이 가능하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440억원이 투입되며,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IC 입구(21번 국도, 33km)까지를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실증을 위한 도로환경과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하고,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주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

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기관·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 기관들은 새만금과 연결되는 인근 도심, 국도 및 고속도로, 일반차와 자율차 공동 운행 환경에서의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정성 등을 실증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1, 2단계(새만금주행시험장,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이어, 마지막 3단계 사업인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 최초로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동일지역 내에서 완벽하게 갖춰지는 셈이다.

도는 이사업을 통해,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화물·물류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실증으로 상용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등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실증을 통해 수집된 상용차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전문단지, 전주·완주 수소도시, 도내 상용차 생산업체 등과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친환경 스마트화의 대표적 사업으로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지도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기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도는 군산시와 함께 3단계 실증기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해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물론, 다량의 화물운반, 화물(상용)차 운행의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감소 등 물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막바지 준비 중인 새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전북도, 김제 백구농공단지 산업부 공모 선정

### 3년간 예산 128억 투입... 농공단지 활성화 위한 제반 사업 추진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농공단지 패키지지원 공모사업'에 김제 백구 농공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4개 핵심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연계 지원, 농공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백구 농공단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28억(국비 90억, 지방비 38억)을 투자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백구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만 구성된 특화단지로, 특장기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거점 단지가 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우수한 여건과 더불어 기성된 주변 지역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거점 농공단지인 백구 농공단지에 근로자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경영 및 수출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특장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 거점으로서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활력이 낮은 월촌 농공단지를 연계단지로 지정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임대공장을 조성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에 특장기계산업의 부품기업을 지원해 업종 고도화를 통한 나후 농공단지 체질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도비를 투입해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노후 농공단지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비사업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와 '폐수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공단지 환경 개선 국가 공모에서 지난달 선정된 농립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시범사업'과 더불어 산업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농공단지를 지역 거점으로 변모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전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농공단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이 기폭제가 돼 도내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재탄생시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 도내 2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5월부터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연간 2차례 실시하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최종유포구, 연못)을 채취해 살균제와 살충제 등 총 28종(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의 농약에 대해 검사한다.

지난해 도내 27개 골프장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7종이 검출됐으나,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내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주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소·돼지 유해 해충 피해, 예방이 최선!

### 도, 모기 매개 질병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 당부

전북도가 모기 출현과 소 방목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유해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는 특히 모기 매개 소·돼지질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소의 경우 모기가 옮기는 아까비네, 유행열 등에 감염되면 유·사산, 고열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돼지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사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산과 들에 서식하는 진드기는 가축을 물어 바베시아 등과 같은 병원균을 감염시킨다.

소가 감염되면 고열, 빈혈, 체중 급감 등을 유발하므로 소를 방목하기 전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거나 살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기, 진드기 같은 유해 해충 예방백신 접종 및 구제약품 투여와 함께 축사 주변 환경정리를 통해 유해 해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호성 기자

#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 장학생 선발

### 국내·국제대회 입상 실적있는 중·고등학생 20명 선발·인당 250만원 지원·20일까지 인터넷 신청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원 이하 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각종 국내외대회 수상 실적 있는 중·고교 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총 5천만 원의 재능개발비를 지원하는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20일까지며, 진흥원 누리집(www.jbic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방법은 수상실적 50점, 면접 50점(에세이 등)을 종합평가 한 후, 진흥원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jbics.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276-8307, 83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흥원은 예술분야에 재능 있는 도내 초·중학생들을 교육하는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을 지난 3

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도내 초·중·고·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전북체대 과학인재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내 대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JB 선도산업 육성방안 탐구 지원사업'과 '전북도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인재육성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유호성 기자


구독·광고 문의 063 288 9700

## 도민과 원우를 위한 특강 및 축제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에 유명강사를 초청해 도민을 위한 스피치 무료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인들과 같이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강사 박인욱  
명지대학교 교수 역임  
국내유머 여성강사 1호



대회본부장 김영욱  
전담교수  
스피치올림픽 전북회장



대회장 손영엽  
군산대 스피치과정 원우회장  
서평수술포럼(주) 대표이사

- 일시 : 2022년 5월 14일 (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남문 앞)
- 주최 :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 주관 :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전화 : 285-6676, 231-6669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